

고성신문 창간축하메시지

송훈석 국회의원

“고성군의 ‘빛과 소금’ 역할 기대”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고성신문’의 창간을 기다려 온 애독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국가적으로도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



니다. 지혜와 슬기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는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으로 전국의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고 시름이 깊어가고 있으며,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고단해 있지만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종식되어 꿈과 희망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고성군의 밝은 미래를 선도

하기 위해 출발하는 고성신문은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날카로운 견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군민들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고성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며 출발하는 ‘고성신문’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처럼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성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참 지역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합리적이 정책대안 그리고 주민들의 애환을 담아 내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부드리며, 그 본연의 충실한 언론역할을 독자들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성신문이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 소통의 광장으로도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

고 매서운 비판으로 지역사회를 채찍질 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감동있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도 많이 발굴·소개해 살기좋은 행복한 고성을 만들어가는 ‘고성신문’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힘찬 출발을 하는 ‘고성신문’의 발전과 번영을 고성군민과 독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주민들의 사랑받는 신문으로”

김좌훈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역사 깊은 고장 고성군에서 지역신문이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성신문은 지방 자치 시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창간하기 시작한 전국의 많은 지역신문 가운데 후발주자로 창간하게 되지만, 늦게나마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언론이 탄생하게 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고성신문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성군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성군의 취약



부분을 보완해서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고성을 발전시키는데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간다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의 역사가 벌써 20여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중앙지와 TV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이 굳건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들을 비롯해 신문사의 전 종사자들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겨울 추위도 다가올 봄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고성신문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안 제시·사회적 책임 함께 고민”

박효동 강원도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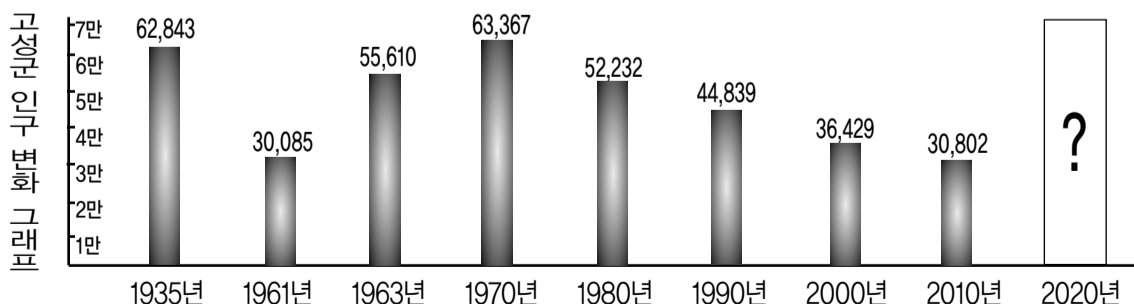
고성지역, 지역신문인 「고성신문」이 지역사회에 새롭게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행복한 고성만들기, 행정과 주민의 가고,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라는 모토로, 고성의 언론을 트고 자존심을 일깨우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국회의 의정연수원 번복, 알프스 리조트 영업중단의 장기화, 동서고속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착공 등 굵직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각종 시책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중앙의 관심은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쳐야 합니다. 그 중심에 지역신문이 함께해야 합니다. 생생한 민심의 현장을 기록하고 전달하며, 직언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성의 역사로 기록될 기사가 차곡 차곡 쌓이고, 이러한 순간들을 보면서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는, 진중한 지역사회의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고장, 고성 주민들이 애향심과 자부심으로 뭉쳐지고, 통일시대 남북의 뜨거운 숨결과 역동하는 힘찬 맥박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고성의 정통성이 되고, 흔들리지 않은 고성의 힘으로 뿌리내려, 지역주민의 굳건한 믿음속에 발전되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고성인구 늘리기 고성신문이 앞장서겠습니다

고성군 신규 전입 세대에 고성신문 1부를 1년간(4만원) 무료로 배부합니다



전입세대 무료 구독신청
☎033)681-1667

주식회사 고성신문